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애가 3:22-23)

팬데믹의 공포와 혼란으로부터 2년 반여의 시간을 보내온 가운데서도 교회와 사역, 그리고 가
족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귀한 동역자들에게 마음깊은 감사와 함께 사역소식을 나눕니다.

<떨어진 씨앗의 열매>



목장의 선교지 중 한 곳인 라스 필라스 마을에서 함께 모여 예배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이 침례에 순종한 일로 인해 크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매번 10시간 이상을 달려가야 하는 곳인
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헌신한 젊은 인디오마을의 형제, 자매들은
더 깊은 마을까지 가야하는 사명을 일깨우는 것 같습니다. 사실, 더
깊고 험한 먼 곳까지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
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면,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선교사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은 적으니”(마 9:37)

올 5월에 주님 품으로 떠난 마리셀라 자매의 기도가 열매 맺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남편이 자매의 소천 이후 한 달이 지나서 후안목자의 목장을 통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
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까지 되었습니다. 대학교수이자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로 여러 지역을 다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침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목장과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에 감사가 있
습니다. 그 형제를 위해 시작한 온라인 성경공부에 3명이 더 함께하여
말씀을 나누고 서로 중보하며 각자 전도할 영혼을 1명씩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
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갱생원 사역>



몇 차례 갱생원에서 도움을 요청하며 초청했지만, 교회사역과 목장선
교지인 위출 인디오마을들의 사역으로 인해 방문할 수 없었는데, 목장
식구 중 한 가정의 요청이 있어 두 번에 걸쳐 갱생원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갱생원에 있는
이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맛있고 넉넉한 식사를 마련해 가서 섬
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말씀에 관심을 보인 이들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영혼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새
로운 사역의 장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린이사역과 양식나눔>



섬기고 있는 주님의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과 도우미들의 헌신과 수고로, 아이들을 위해 4일간의 여름성경학교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복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처음으로 여름성경학교 자원봉사자로 섬겼던 아론(Arón)형제는 여름성경학교 마무리 평가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중, '세상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선물을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아무런 이유나 보상이 없이 수고하며 아이들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생애에 처음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나눔

은 우리의 섬김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격려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연이어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에서 교사와 도우미로 섬겼던 청소년들과 함께 두 곳의 인디오마을에 들어가 여름성경학교로 인디오마을의 아이들을 섬길 수 있었고, 더불어 가지고 간 의복이며, 양식을 가정마다 전달할 수 있어 감사가 있었습니다. 영의 양식과 삶의 필요인 옥수수를 나누면서 먹을 양식으로 인해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며 돌아올 수 있어서 동역자들의 귀한 드림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기쁨과 열매를 주심은 우리보다 더 앞서 행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인함이요, 그 마음을 배워나가게 하시는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은혜와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 후원으로 인해 모든 사역이 가능함을 알기에 마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멕시코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1. 10월 4일부터 9일까지의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현지 목회자들을 잘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을 나눌 수 있도록 -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 교회와 인디오마을의 청소년 사역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주셔서 청소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3. 코로나로 침체된 영혼구원에 더 집중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4. 가족의 영적, 신체적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멕시코에서 2022년 9월에...
추기성, 정지연 선교사 드림